

# 등급간 점수차 커... 수능 영어 여전히 중요했다

## 명문대 입시 전략 ② 연세대

정시 최초합격자 전원 영어 1등급  
영어 2등급, 타과목 만회 힘들어

2018 대입에서 수능 영어 과목이 첫 질 대평가 9등급제로 시행됐지만, 연세대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전원이 영어 1등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등급간 점수차를 좁혀 사실상 영어가 무력화된 서울대, 고려대 등과 반대 사례다. 이 때문에 연세대 지원자 중 영어 2등급 이하를 받은 수험생의 경우 타 과목인 국어·수학·탐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회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세대의 수능 영어 반영 방식을 보면, 1등급은 100점을 주고, 2등급은 95점으로 1~2등급간 점수차가 5점이다. 이어 3등급은 87.5점, 4등급 75점, 5등급 60점, 6등급 40점, 7등급 25점, 8등급 12.5점, 9등급 5점으로 등급이 내려갈수록 등급간 점수차가 벌어지는 형태다. 또 영어 점수를 총점에 비율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감점하는 방식보다 등급간 점수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특징이 있다.

첫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전년과 비교해 영어 반영 비중을 다소 줄였지만, 등급간 점수차가 커 여전히 영어의 중요성이 유지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연세대 영어 반영비율은 인문계의 경우 전년 28.6%에서 16.7%로, 자연계열은 20%에서 11.1%로 반영비율은 적지않게 감소했지만, 등급간 점수



연세대학교 캠퍼스 전경.

/연세대

차를 키워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총 응시인원의 10.03%인 5만2983명이었다”며 “상대평가가 실시됐던 전년에 비해 1등급 인원이 늘었지만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됐다 하더라도 국수탐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면서 영어까지 1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학년도 연세대 사학과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A씨 역시 삼수까지 하면서 2등급이던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과목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학생이 영어 과목에서 손을 놓았다가 2등급 이하를 받았다면 합격이 어려웠던 셈이다. 영어를 제외한 A씨의 수능 국수탐 합계는 재수전 11에서 재수후 5로 좋아졌다. 상대평가인 국수탐 백분위 합계 역시 244에서 289.5로 상승했다.

고3과 재수 시절 입시에서 실패한 뒤 무력감에 시달리다 조금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A씨는 삼수 성공 비결로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만의 뚜렷한 신념을 세우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다는 것을 꼽았다. A씨는 “인강을 듣더라도 인강 듣는 시간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 조절, 나에게 잘 맞는 인강 강사 선택 등을 스스로 고민해 결정했다”면서 “수많은 후기글과 조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 위주의 공부 대신, 모르는 것을 위주로 자신에게 약한 부분의 개념부터 틈틈이 메워가는 방식으로 공부했다고 했다.

시기적으로는 6월까지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복습, 수능 전까지 실전에 대비해 공부했다. 특히 상위권의 경우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개념을 구조화해보고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위권 역시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고 반복하는 학습법이 좋다고 조언했다.

6월과 9월 두 차례의 평가원 모의평가는 시험을 치른 주 안에 오답정리와 분석을 끝냈다. 이 과정에서 틀린 문제나 어려웠던 문제를 복습하면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었다.

과목별로 국어는 ‘개념의 구조화’, 수학은 ‘답지 보지않고 스스로 문제 풀이’, 영어는 ‘EBS 교재와 영어 문장 다독’을 택해 공부했다. 구체적으로 국어는 파트별 개념을 반복해 본 뒤 최근 5개년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했고, 수학의 경우는 모르는 문제라도 답지부터 보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풀이를 해보는 과정이 중요했다.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답지를 참고하되 새로운 접근법을 익히고 반복 풀이했다. 어릴적 좋아해 잘했던 영어의 경우 자만심으로 고3과 재수시절 EBS를 잘 보지 않았다가 EBS를 꼼꼼히 공부한 결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두 차례 실패했던 A씨는 “실패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행복하게 공부할 때 최대의 효율이 나오는 것 같다. 실패 이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자신감과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측은 A씨가 2018학년도 대입에서 지원 가능했던 학과로 나군 연세대 행정학과를 비롯해 같은 군 고려대 미디어학부/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 경영학부를 꼽았다. 가군에서는 서강대 경영학과, 성균관대 글로벌경영,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였고,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영학부, 동국대경주 한의예과(인문)를 지원 가능했던 학과로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도움말=종로학원하늘교육

## 직장인 80% “1년간 이직 러브콜 받았다”

이직 성공자는 4명 중 1명꼴

직장인 10명 중 8명꼴로 최근 1년 이내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에 성공한 경우는 4명 중 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5%가 이직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 직장에 입사한 시기는

3월(21.6%)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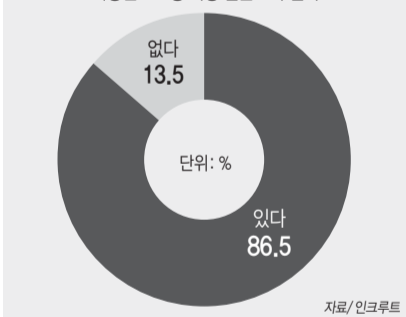
이직을 시도한 주요 이유로는 ‘현 직장에 대한 불만족(또는 화기)’이 43.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자기개발 차원에서 이직을 시도했다(26.0%)’, ‘이직 제안을 계기로 준비하기 시작했다(24.7%)’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직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이직 제안은 5회 미만인 6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회 이상~10회 미만(24.1%)’, ‘10회 이상~20회 미만(8.3%)’

받아왔다고 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으며, ‘20회 이상의 오퍼를 받았다’고 밝힌 이도 2.1%로 나타났다.

이직 제안은 많았지만 이직에 성공했다는 답변은 26.9%에 그쳤다. 이직을 포기했다는 응답자들이든 이직 포기 이유로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작성, 면접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비용 등이 아까웠다’고 답한 응답자가 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음은 절실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합격했다’

최근 1년 새 이직 위해 구직시도 경험  
직장인 4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8.2%), ‘새 직장, 새 동료들에 적응하지 못해서’(17.0%), ‘어떻게 해야 이직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서’(13.8%)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 새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탈바꿈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 교과서

2월 새학기를 맞는 초3~4·중1·고1 학생이 공부할 교과서가 학생 참여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 교과서가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새 교과서는 학생 스스로 참여해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기존 지식을 설명하거나 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강조된 방

식으로 바뀐다고 1일 밝혔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바뀌는 새 교과서는 2019년에는 초5~6과 중2, 고2에 적용되고, 2020년에는 중3, 고3 학생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학생의 흥미와 참여 유도에 부 적합한 구성, 일상생활과 괴리된 제재와 활동 등을 배제하는 등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새 교과서는 ▲적정화된 학습량을 ▲참여하며 배우고 ▲배운 것을



교육부가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 학생들이 3월부터 사용할 새 교과서를 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삶에 적용하는 교과서를 목표로 했다. 새 교과서를 통해 단순지식을 주입하기보다 미래 삶에 필요한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과서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3465명 대상 초3~4 새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2.8%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어 교과서의 경우 책 한 권을 선정해 읽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토의해 결과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회 교과서가 기존에 ‘학습의 결과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했다면, 새 교과서는 교실 내 학습을 학교 밖의 삶과 연계하는 활동을 강조했다.

수학 교과서의 경우는 학습 분량과 난이도를 학생 수준에 맞춰 학습 부담을 낮추고, 꼭 배워야 할 내용은 협력·탐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제시해 실생활 속 활용 예시를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